

실노동시간 단축 지원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여 일·생활 균형과 생산성 향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1.15.(목) 한국경제, “주4.5일제 도입엔 1인당 720만원 지원…中企 ‘우리에겐 그림의 떡’”, “주4.5일제 정부 지원금, 대기업 노조원만 혜택 보지 않겠나”, 매일경제, “저성장 위기인데 일 덜하면 보조금 준다는 황당 정부” 기사 등 관련

- 산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. 주 6일 근무가 대부분인 영세 사업장은 단계적인 노동시간 단축 없이 바로 주 4.5일제로 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.
- 이런 상황에서 근무시간을 단축하면, 기업들은 줄어든 노동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근로자를 더 뽑아야 한다. 시간당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면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기업은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.

2. 설명 내용

- 위라벨+4.5 프로젝트는 대규모 기업이 아닌 자발적으로 주4.5일제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임
- 특히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1인당 지원금을 상향하고, 생명·안전 업종, 교대제 사업장 등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지만, 사업주 부담이 커 당장 도입하기 어려운 취약 분야도 우대지원하는 등 노동시간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할 계획임
- * 20~50인 미만: 50인 이상 기업보다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원
우대지원 사업장: 생명·안전 업종,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, 장시간 노동 사업장, 비수도권 기업

- 또한 주4.5일제를 일시에 도입하기 어려운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한 경우*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

* 1주 4시간 단축 뿐만 아니라 1주 2시간 미만의 주당 실노동시간 단축(부분 도입)도 지원

- 더 나아가, 실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추가 채용을 한 경우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1년간 지원하여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, 실노동시간 단축이 고용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 하겠음

- ‘26년 범정부 지원사업은 총 9,363억원 규모로, 6,909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, 생산성 향상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음

* 일·생활 균형 지원: 총 4,624억원, 5,204개소, 노동자 11.2만명
 생산성 향상 지원: 총 4,630억원, 1,705개소
 휴가·관광 지원: 총 109억원, 노동자 10만명

담당 부서	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한진선 (044-202-7991)
		담당자	사무관	구자욱 (044-202-7618)

